

[구EP-03]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의 천문학교육

이강환¹, 하상현^{1,2}

¹국립과천과학관, ²충북대학교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은 연간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어 일반 대중들에게 천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게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다. 과거의 천체투영관에서의 천문학 교육은 별자리나 좌표계 설명이 대부분이었지만 디지털 천체투영장치의 보급과 함께 천문학의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는 영상물들이 제작되어 여러 가지 방식의 천문학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에는 많은 수의 천체투영관이 있으며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수준의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영상물들이 제작되고 있는지와 천문올림피아드 실습교육 등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문학 교육 내용들을 소개하고, 천체투영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천문올림피아드 실습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천문학 실습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인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구EP-04] SETI KOREA 프로젝트: Korea@Home 사업종료에 따른 기술이전 추진 현황

이명현¹, 김효령¹, 최문항¹, 최장원², 윤준원², 김미경²

¹한국천문연구원, ²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9년 6월 17일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와 함께 한국형 외계지적생명체 탐색 (SETI KOREA) 사업의 공동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SETI KOREA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한국천문연구원은 KVN 관측자료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인 Korea@Home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는 교육과 홍보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다. 2010년 1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10년 기본사업 20% 축소' 방침에 따라 Korea@Home의 모과제인 '그리드 기반기술 개발' 과제가 폐지되어 Korea@Home 사업도 종료될 위기에 처했고 SETI KOREA 사업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Korea@Home 시스템을 한국천문연구원에 기술이전하여 한국천문연구원 주관으로 SETI KOREA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발표에서는 Korea@Home 시스템의 기술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한다.